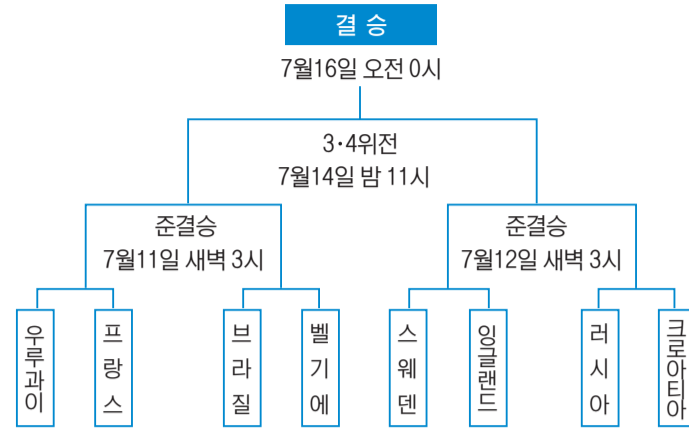




우루과이 수아레스
우루과이 vs 프랑스
6일 밤 11시



‘축구중가’ 잉글랜드가 ‘승부차기 저주’를 풀어내고 8강행 막차를 타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4강에 도전하는 8개국 모두 확정됐다.

잉글랜드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롬비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기고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 16강전의 마지막 경기였던 잉글랜드-콜롬비아전이 끝나면서 러시아 월드컵의 8강 대진이 모두 완성됐다. 8강 대진은 유럽과 남미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유럽은 6개국(프랑스·벨기에·러시아·크로아티아·스웨덴·잉글랜드), 남미는 2개국(우루과이·브라질)이 8강에 오르면서 유럽의 우승 확률이 커졌다. 앞서 2006년 독일 대회부터 2014년 브라질 대회까지 유럽



벨기에 '아자르'
브라질 vs 벨기에
7일 새벽 3시

유럽 6 vs 남미 2 ... 8강 '빅매치'



스웨덴 '포르스베리'
스웨덴 vs 잉글랜드
7일 밤 11시

유럽, 2006년부터 3개 대회씩 짝을 이룬 8개 팀중 4개 팀 우승 경험 없어
네이마르·수아레스·케인·음바페 '스타워즈'

(2006년 이탈리아·2010년 스페인·2014년 독일)이 3개 대회를 짝꿍했다. 유럽과 남미 이외의 국가가 8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서 북중미의 멕시코와 아시아의 일본이 16강에 진출해 8강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006년 독일 대회 때도 이번 러시아 대회와 똑같이 유럽 6개국(독일·이탈리아·우크라이나·잉글랜드·포르투갈·프랑스), 남미 2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이 8강에 진출했고, 유럽이 모두 준결승(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에 올라 결국 이탈리아가 승부차기에서 프랑스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러시아 월드컵 8강전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6일 오후 11시 나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프랑스전부터 시작된다. 곧바로 7일 오전 3시 카잔 아레나에서 브라질과 벨기에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어 7일 오후 11시 사마라 아레나에서 스웨덴과 잉글랜드가 맞붙고, 8일 오전 3시 소치 피스트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크로아티아가 격돌한다. /연합뉴스



러시아 vs 크로아티아
8일 새벽 3시

잉글랜드 '승부차기 저주' 풀고 함박웃음

월드컵 3전 전패 끝 승리... '선방 골키퍼' 픽퍼드 존재감

‘축구 중가’ 잉글랜드만큼 승부차기로 고 통받은 팀은 없었을 거다. 월드컵과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등 메이저 대회에서 번번이 승부차기 불운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다. 월드컵에서는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준결승에서 서독에 3-4로 진 것을 시작으로 1998년 프랑스 대회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에 3-4, 2006년 독일에서 8강전에서 포르투갈에 1-3으로 졌다. 유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로 1996 4강에서 독일에 5-6으로 졌고, 2004년엔 8강에서 포르투갈에 다시 5-6으로 패했다. 2012년 대회 8강에서는 이탈리아에 2-4로 무릎 꿇었다. 남자 성인 대표팀, 남자 21세 이하 대표팀, 여자 대표팀이 최근 14차례 승부차기에서 승리한 게 두 번밖에 되지 않아 축구 중가의 체면이 승부차기에서만큼은 세워지지 못했다. 4일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잉글랜드의 목표는 어쩌면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연합뉴스

하지만 1-0으로 앞서 승리를 눈앞에 둔 후반 추가시간 콜롬비아의 수비수 예리 미나에게 헤딩 동점 골을 허용했고, 연장전에선 득점하지 못하며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승부차기로 끌려갔다. 세 번째 키커로 나선 조던 헨더슨의 오른발 슈팅이 데이비드 오스피나 골키퍼에게 걸리면서 2-3으로 뒤지기 시작해 잉글랜드의 약용은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콜롬비아 네 번째 키커인 마테우스 우리베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벗어나면서 기사회생했고, 이번엔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콜롬비아의 다섯 번째 주자인 카를로스 바카의 슈팅이 잉글랜드 골키퍼 조던 픽퍼드(에버턴)의 왼손에 걸린 것이다. 잉글랜드의 마지막 주자인 에릭 다이어가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쏘면서 마침내 저주를 풀었다. 지난해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되기 시작해 이제 A매치 8경기에 출전한 '초보 국가대표' 픽퍼드는 나라를 구하는 선방 하나로 '넘버 원' 골키퍼의 존재감을 굳혔다. /연합뉴스

'토사구팽' 日 점쟁이 문어

조별리그 결과 다 맞히고시장에 팔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독일의 원조 '점쟁이 문어' 파울은 신들린 예측을 쏟아낸 뒤 그해 10월 독일 오버하우젠 해양생물관 물탱크에서 자연사했다. 파울의 후손 격인 일본의 점쟁이 문어는 신통력을 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어시장에 팔려 식자재로 내걸렸다. 4일 영국 BBC 방송과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의 여촌 오비라에 사는 어부 아베 기미오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일본과 콜롬비아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린 지난달 19일 잡은 문어 한 마리에 라비오라는 이름을 붙여 일본의 월드컵 경기를 전망토록 했다. 플라스틱 수조 안을 일장기, 상대 팀 국가, 무승부로 공간을 삼등분하고 공간마다 라비오를 유인할 만한 음식을 넣었다. 라비오가 국가가 있는 곳으로 가면 그 나라가 이기는 것이다. 라비오는 콜롬비아전에서 일본의 승리에 이어 세네갈과의 2차전에서도 무승부를 정확히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전에서 일본의 패배까지 라비오는 일본의 조별리그 전적 1승 1무 1패를 모두 맞춰 화제에 올랐다. 일본은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으나 라비오는 예지력을 선사할 기회를 더는 얻지 못했다. 주인 아베가 점쟁이 문어로 유명해지는 것보다 생계를 위해 라비오를 시장에 파는 게 낫다고 결정해서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케인 6골 '득점왕' 순항

콜롬비아 로드리게스 부상에 맞대결은 무산

4일 열린 잉글랜드와 콜롬비아의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은 양 팀 간판스타인 해리 케인(토트넘)과 하메스 로드리게스(바이에른 뮌헨)의 맞대결 성사 여부로 특히 관심을 끌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만 5골을 폭발하며 득점 선두로 나선 케인과 4년 전 브라질 대회 득점왕인 로드리게스는 승부를 좌우할 만한 핵심 선수였다. 하지만 둘의 맞대결은 로드리게스의 부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희비는 극명히 엇갈렸다. 케인은 후반 12분 콜롬비아의 카를로스 산체스에서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직접 나서 오른발 슈팅을 꽂아 넣으며 잉글랜드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는 발판을 닦았다. 그의 이번 대회 6번째 골이다. 로멜루 루카쿠(벨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이상 4골)에 한 골 차 앞선 득점 1위를 달린 케인은 격차를 두 골로 벌리며 득점왕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나갔다. 1939년 토미 로튼 이후 79년 만에 A매치 6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잉글랜드 선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잉글랜드가 후반 추가시간 동점 골을 허용해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끌려가면서 키커로 나서야 하는 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가장 부담스러운 첫 주자로 나선 그는 침착하게 성공하며 잉글랜드가 월드컵에서 이어진 지긋지긋한 승부차기 징크스를 깨뜨리고 8강으로 가는 데 앞장섰다. 케인이 영광을 누리는 사이 로드리게스는 벤치도 아닌 관중석에서 콜롬비아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대회 직전부터 종아리 부상에 시달린 그는 세네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선발로 나섰으나 전반전에 조기 교체돼 우려를 낳았다. 16강전을 앞두고 훈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정도였음에도 막판까지 출전 여부를 저울질했으나 결국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다. 교체 명단에서도 빠진 채 관중석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그라운드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로드리게스는 케인의 골이 터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